반남고분 등 영산강 고대 유적 세계유산 되나

나주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자미산성·잠애산성·백제 목간도 포함

나주시가 반남고분〈사진〉 등 영산강 고대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22일 "대형전용옹관과 고분군, 고대 성곽인 산성 등이 산재해 있는 영산강 유역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영산강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창적인 묘제인 대형 전용옹관과 옹관을 사용해 조성된 반남 고분군, 복암리 고분군, 고대 성곽인 자미산성과 잠애산성, 복암리 고분군 주변에서 출토된 고대의 기록물인 백제 목간(木簡) 등이 분포돼 있다.

시는 등재를 위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음달 중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영산강 고대문화 보존과 한국 역사의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적을 정비해왔다. 오는 11월 국립나주박물관과 2014년 복암리고분전시관 등이 개관하면 영산강 고대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나주는 영산강 고대문화의 중심지로 유적 보존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일한 옹관고분의 독창성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며 "등재를 통해서 한국 역사문화의 독창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가적 보존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관광명소화 등으로 지역문화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물감 풀어 놓은 듯… 봄풍경 일번지 세량제 지난 19일 화순군 화순읍 세량제를 찾은 수백명의 사진가들이 경쟁적으로 봄 풍경을 앵글에 담고 있다. 물안개와 함께 만개한 산벚꽃, 신록이 잔잔한 수면에 반영되며 절경을 연출하는 세량제는 전국적인 '봄풍경 일번지'로 손꼽힌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다음달부터 낙지 못 잡는다

산란철 어족 보호 3개월간

무안군, 홀통 등 4곳 금지

무안군이 지역의 대표적 수산물인 무안갯벌낙지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지역 연안 200ha에서 낙지잡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무안군 망운면 조금나루, 운남면 범바위, 망운면 탄도, 현경면 홀통 등 4곳의 해상이다.

이 시기는 낙지가 산란하는 기간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무안군은 본격적인 낙지 산란철을 앞두고 최근 지역 어촌계 어민과 함께 폐어망 인양과 갯벌 갈아엎기 작업을 한 바 있다.

또 보호수면 주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업 지도선 상시 배치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무안 갯벌낙지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무안지역에서는 673가구가 450t의 낙지를 잡아 13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나주시, 부실공사·임금체불 방지 주력

기술·계약직 담당 공무원 교육

나주시가 부실공사와 발주공사에 대한 임금체불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22일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본청을 비롯 읍면동에 근무하는 기술 및 계약직 업무담당 공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시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방지는 물론 기술 및 계약직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능력 배양과 직무역량을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는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현장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사현장에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약자를 위한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 감사원 박철진 감사관과 양일규 광주지방기상청장이 강사로 나서 건설공사 감독시 단계별 점검사항과 감사 지적사례,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을 통한 전문능력 배양 등을 주제로 강의해 호평을 받았다.

나주시 정광호 건설과장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방지와 체불임금이 없도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장성, 도시민 140세대 텃밭 분양

세대당 16.5㎡씩 분양 완료

장성군은 22일 "광주와 인접한 진원면 진원리 920㎡와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성읍 일원에 1500㎡의 텃밭농장을 조성, 세대당 16.5㎡씩 모두 140여 세대에 선착순으로 분양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들 도시민 농장주들을 위해 지난 19일과 20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첫 농부학교도 열었다.

'상진이와 상언이네 농장'의 임행자씨는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며 "앞으로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질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텃밭농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함을 물론, 장성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소비자들에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내 어르신들에게는 소일거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진도 신비의 바닷길, 지구촌 축제로"

26·27일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진도군은 22일 "제3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에서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학술세미나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진도유스호스텔에서 진도학회 주관으로 세계축제연구소 유경숙 소장과 일본 와세다대학 이토아비토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대표축제의 성공요소와 전략,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된다.

나경수 진도학회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와 우리나라의 성공한 축제의 성공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2013년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서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등의 전통민속문화, 대한민국 국견 진도개, 천년의 색을 간직한 진도홍주를 만나 볼 수 있다.

또 진도군은 섬과 바다를 직접 느껴보는 해양체험, 예향 진도 체험 프로그램 등도 준비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제35회 진도 바닷길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 먹거리 축제의 한계를 벗어난 참여형 문화관광축제로 문화, 역사, 예술, 관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화가 45명 신안서 사생대회

현대사생회 소속 화가 45명이 22일부터 2박3일간 신안군 하의도와 신의도를 찾아 사생대회를 갖는다.

이들 화가는 지난 2008년 흑산도·홍도, 2012년 비금도·도초도·우이도에 이어 3번째 신안을 찾았으며, 스케치 투어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을 오는 7월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